



# 남원 가을 축제 즐기고 혜택도 받고

주말 국제드론제전·홍부제·국가유산야행 3대 축제 개최  
누리시민 대상 스탬프 투어...완주자에 농산품 이용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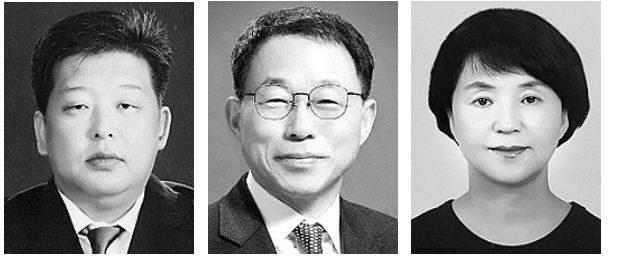
남원시가 가을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남원시는 이번 주말 열리는 '가을 3대 축제'에 맞춰 경품이벤트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남원누리시민' 인지도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드론제전(16~19일), 홍부제(17~19일), 국가유산야행(16~19일) 등 남원 가을 3대 축제와 연계해 관외 누리시민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등을 실시한다. 스탬프 투어는 축제 기간 남원누리시민이 3대

축제 현장을 방문해 스탬프 인증을 모두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가입자와 현장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스탬프 완주자 3000여 명에게 행사장에서 사용할 가능한 원푸드 등 농산품 이용권을 제공한다. 스탬프 카드 및 이용권은 국제드론제전과 국가유산야행 행사장 내 남원누리시민 부스에서 수령하면 된다.  
특히 시는 스탬프 완주자 중 숙박 인증 참여자에게는 농산품 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체류형 축제로 만들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누리시민 15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n번째 완주자 20명에게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명지각 숙소 30% 모바일 할인쿠폰 및 농산품 이용권을 추가 증정, 재방문 유도와 스탬프 투어 참여 열기를 높일 방침이다.  
명지각은 지난 6월 개관한 지역특화친환경 한옥 호텔로, 2025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누리시민으로 지역과의 인연을 맺고 남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누리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고 누리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생활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민의장’ 김상필·김우호·이명훈 씨

제41회 고창군민의장 수상자로 김상필, 김우호, 이명훈 씨가 선정됐다.  
김상필 씨는 고창군스포츠클럽 지도자로 활동하며 신승찬·김민지 등 걸출한 배드민턴 선수를 길러내며 고창을 '배드민턴 명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전국 각지 전지훈련팀을 고창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했다.  
김우호 씨는 전 인사혁신처장을 지내며 고향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어촌뉴딜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고창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지역 생활기반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명훈 씨는 고창농악보존회장을 역임하며 고창농악의 전승과 가치 확산에 매진했다. 특히 관련 서적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를 주도하며 고창농악의 문화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존 군민의장 수상자 선발은



5개 분야로 나누어 부문별로 1명씩 총 5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심사방식을 대폭 변경해 분야구분을 없애고 최대 3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심사방식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상위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제64회 고창군민의날'에 개최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2027~2028년 국가예산 사업 선제 발굴

신산업 생태계 목표 6534억 규모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남원시가 2027~2028년도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보·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을 본격화한다.  
남원시는 최근 이성호 부시장 주재로 실국소장,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사업 1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부서별 발굴 사업 보고·공유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민선 8기 주요 성과사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목표로 총 사업비 6534억원(60건) 규모의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은 ▲지리산권 치유관광·사회재활 거점 구축(308억원) ▲행복기숙사 건립(198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한파우 예술특화지구 조성(500억원) ▲지리산휴(休) 리조트 단지 조성(800억원) ▲공공의료 거점 K-UAM 시범사업(20억원) ▲스마트 원에단지 기반 조성 사업(100억원) ▲재해위험개선지



이성호(가운데) 남원시 부시장이 지난 15일 '2027~202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1차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구 정비사업(310억원) ▲배상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00억원)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2044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1차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추가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비대면 건강관리’ 건강 개선 효과

AI-IOT기반 만성질환·식생활 등 측정...허약·약력 개선률 94%대

고창군이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2년 연속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보건소는 최근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198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실천현황, 식생활 실천현황, 만성질환 관리현황, 허약평가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전·사후 건강요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신체활동 개선률 69.2%, 허약평가(3개 항목) 개선률 94.3%, 약력평가 개선률 94.9% 등 건강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의 자가 측정률이 크게 향상됐다. 고혈압 질환자의 자가 측정률은 15.8%에서 92.5%으로 5.8배 늘었고 당뇨 질환자의 자가 측정률은 47.2%에서 88.7%로 1.8배 증가했다.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질환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체적으로는 99.7점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군 보건소는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은 '오늘건강'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보건소 전담인력이 대상자 개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이다.  
월 2회 자조모임 형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보충식품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건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심뇌혈관질환 건강체크 프로그램, C형 간염·골밀도 검사, 노인 맞춤형 구강관리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한의학 건강관리 교육 등 통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도 제공됐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내장산 단풍 구경 후엔 달빛장터로

정읍시, 18일~11월 9일 정읍역 광장서 ‘슈퍼푸드 페스티벌’

정읍시가 구절초축제와 내장산 단풍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위해 야간 달빛장터를 연다.  
정읍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말 오후 5시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와 특산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정읍 슈퍼푸드 페스티벌'을 정읍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절초와 단풍 명소를 둘러본 관광객들이 저녁

시간까지 정읍에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단순한 장터를 넘어 온 가족을 위한 복합 문화 놀이터로 꾸며진다.  
성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떡메치기와 달고나 만들기 체험,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게임 퍼레이드와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장터에는 25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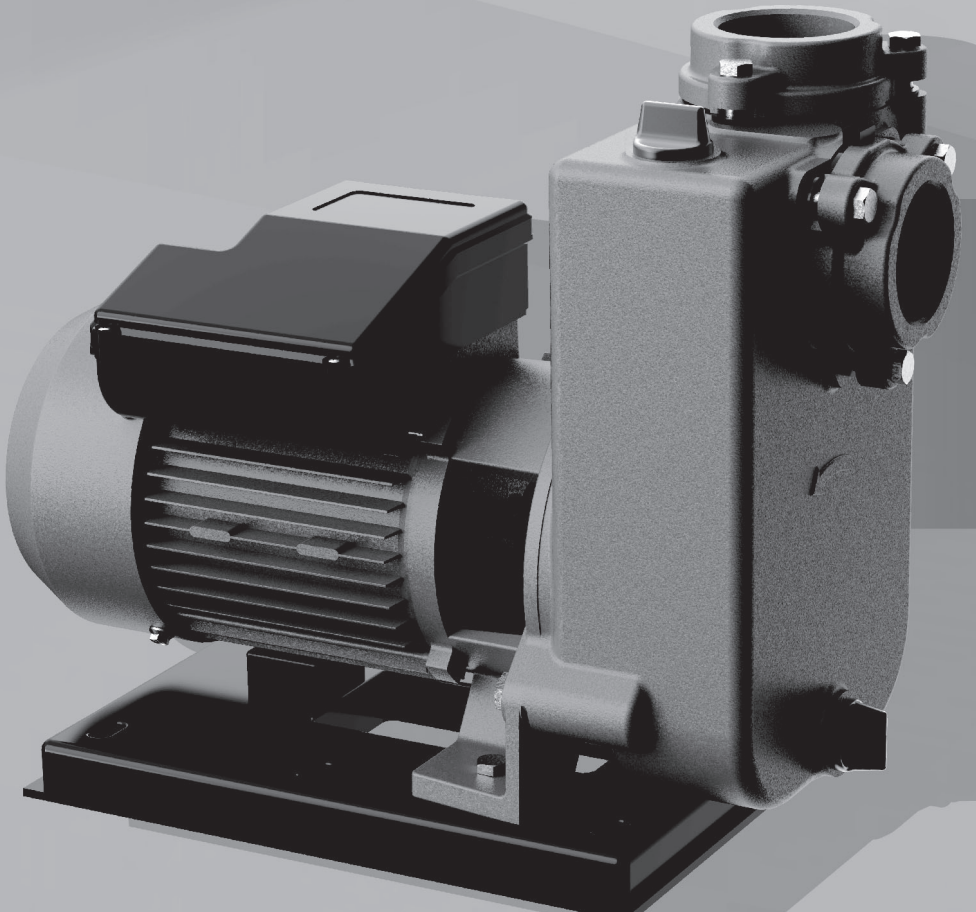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등이 참여해 정성껏 만든 특산품이 선보인다.  
갓 수확한 신선 농산물부터 깊은 맛의 전통 장류, 아기가기한 수공예품까지 정읍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역 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가을 관광 시즌을 맞아 우리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즐거운 문화 경험을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초·중·고 316명 대상 ‘승마 교육’

22일까지 참가자 추가 모집

정읍시가 지역 초·중·고등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지원사업'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 강습을 넘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승마 지원사업'은 총 10회에 걸쳐 이론 수업부터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기초 승마까지 체계적인 강습으로 진행된다. 경험이 풍부한 '웨스턴스프링스'에서 운영하며, 모든 참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시는 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기존 30%(9만6,000원)에서 20%(6만4,000원)로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등 사회공익승마 대상 학생은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2일까지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청하게 선정되며, 결과는 23일 같은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체험은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